

# 장흥문화공작소, '토요일인문학강좌' 개최



장흥문화공작소는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토요일인문학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요일인문학강좌는 조선대

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이 주최하고 장흥문화공작소가 주관한다. 지난 8일 문화공간 오래된 숲에

###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주최 9월9일까지 총 4회...22일 2강 열려

서 열린 1편 제1강은 '장자에게 인간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이임찬 연구원(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의 강연이 진행됐다. 첫 강의는 신청인 전원을 포함한 추가 인원 26명이 참석해 2시간이 넘도록 열린 강의와 질문으로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1강을 연결해 5강까지 갔으면 좋겠다. 양행을 생각하며 간다" 등 동양학 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소통과 공감의 인문학-단한 마음열기'를 주제로 한 1편 제2강은 최소영 시인이 강사로 나선다. 2강은 '시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이란 제목으로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공간인 문화공간 오래된 숲에서 열린다.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공작소(061-864-4074)로 문의하면 된다.



## 완도군, '청년 아카데미' 운영

### 총 5개 강좌 진행...제2기 수강생 모집 중

완도군이 청년들의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20 완도군 청년 아카데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군 청년 아카데미는 지난 6월, 제1기 수강생 65명을 모집하고 7월 3일 개강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운영이 중지되었다가 7월 29일 다시 문을 열었다. 아카데미는 SNS 마케팅 교육, 플라워·조향·사진·커피 클래스 등 총 5개 강좌로 진행된다. 조향 클래스에 참여한 한 청년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년 아카

데미 운영으로 청년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청년들의 열정이 발휘되어 불 꺼진 구도심에 활기가 띠고 있다."면서 "2021년도에 청년센터가 개소되면 소통과 문화의 장으로 활용되어 건전한 청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아카데미 제2기 수강생 모집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모집하여 8월 24일(월)부터 강좌가 시작된다. 1기에는 야간반(19:30~21:30)만 운영하였으나, 섬 지역 청년들의 주간반 운영 요청이 있어 2기에는 주간반(14:00~16:00)을 신설, 낮 시간이 자유로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550-5277)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 강진군보건소, 응급혈액 확보 헌혈 행사 실시

### 오는 14일 보건소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강진군보건소는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실과 강진군청 앞(헌혈 차량) 2개소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응

급혈액 확보를 위한 헌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

액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헌혈 전날 음주나 피로 활동을 삼가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4시간과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되며, 간 기능 검사와 B형·C형 간염검사를 포함한 11종의 혈액검사가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헌혈은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수시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어 많은 군민들께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아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 진도군, 50억원 발행...월 70만원·년 600만원 한도

진도군이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억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10%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특별 할인기간 동안에는 월 70만원, 년 60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인상했다. 또한 '진도아리랑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18개소에서 구입가능(신분증 지참)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또 판매 음식점, 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 1,235개 '진도아리랑 상품권' 지정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

다. 특히 구매 금액의 70%(1만원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 영수증도 발행된다. 가맹점주는 카드·등록 수수료 부담 없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권면금액 그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50억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해남형 뉴딜 77건 발굴...대응 박차

### 해남군 1차 보고회 개최



해남군은 지난 10일 강상구 부군수 주재로 해남형 뉴딜 사업 발굴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부서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부응하는 해남형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군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3대 방향에 부응하여 디지털 뉴딜 43건, 그린뉴딜 24건, 안전망 강화 10건 등 총 77건의 해남형 뉴딜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RE100 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 ▲해남고구마 연구센터 설치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센터 조성 ▲비대면 세계유산 체험 플랫폼 개발 ▲디지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가상현실 종합전시훈련장 구축 ▲식품업체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해 해남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사업들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을 중점 점검한 가운데 향후 한국판 뉴딜 사업계획과 연계해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정윤석 옹기장, 강진아트홀서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8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단의 진행으로 강진아트홀에서 추진됐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정윤석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 참여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전통물레 제작 과정 시연 및 전통옹기와 생활용기 작품 전시를 가졌다. 정윤석 옹기장은 "국가무형문화재 8월 공개행사에 참가하게 돼 기쁜 마음이다. 옹기가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를 보다 쉽게 또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